

전남 중부권

상업용 변질 '불교문화축제'

나주시 행사 보조금 지급 논란

고려시대 국난극복 佛心 재현서 돈벌이 행사로 전락
市 "지급 불가" 통보해놓고 슬그머니 1500만원 지원

나주시가 상업적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불교문화 축제'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관내 21개 불교 사찰이 참여한 '나주 불교 사암 연합회'가 '빛가람 고려사지 연등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영산포 둔치 체육공원에서 다양한 불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

하지만 해당 행사의 경우 당초 천 년고도 나주가 고려시대 불심을 바탕으로 국난극복에 앞장선 역사적 무대였음을 재현하는 행사로 기획했으나 상당부분 돈벌이를 위한 상업적 행사로 변질돼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주최측이 행사용 부스를 마련해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난장' 상인 25명 가량을 1000여만원을 받고 끌어들이고, 성인가요 가수들을 대거 출연시키는 등 불교관련 문화축제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행사였다는 것.

이 때문에 나주시도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15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으나 뒤늦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변경해 집행하기로 결정,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주민 E(51·나주시 삼영동)씨는 "불교관련 문화축제를 빙자해 10여 일 동안 먹거리와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장'이 장기간 운영됐다"며 "염불보다 잣밭에 관심을 둔 변질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했던 K 집행위원장은 "나주시가 이번 행사에 보조금 지원을 취소한다고 통보해놓고 뒤늦게 일부 스님들과 접촉해 또다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자신만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지난 2009년 열린 '빛가람 화합혁신 연등축제'는 부처님의 자비를 알리는 목적으로 상업적인 행사는 일체 배제된 채 단 하루 동안만 개최, 1500여만원의 보조금 지원받았으나 전혀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당초 거란의 침입으로 고려 8대 왕인 현종이 2대 왕인 혜종의 고향인 나주를 사적으로 삼아 봉진 이후 10일 동안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개최한 연등회와 팔관회를 역사적 사실에서 재현하기 위해 기획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온가족 함께 모내기 체험 하세요

전남농업박물관 20일까지 참가자 모집

22일 야외자연학습장

"허기가 허려 어거여라 상사로 세/ 여그도 놓고 저그도 놓아 두레방 없인삼겨주께/ 상사소리는 어디를 갔다 때를 찾아서 다시 오네..."

전통 방식대로 어린 모를 직접 손으로 제내어 못줄을 띄워가면서 모내기를 하는 체험행사가 열린다.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은 오는 22일 박물관 야외 자연학습장 무논(266㎡)에서 전통 방식에 의한 '모내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20일까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이번 체험행사는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못자리에서 한 뼘 정도 자란 어린 모를 손으로 직접 찌서 지푸라기를 이용해 '모춤'을 묶어 만들게 하고 이를 어린이들이 예기 지게에 지고 씨래질이 끝나는

으로 옮기게 한 다음 못줄을 띄워 한 줄 한 줄 모를 심는다. 특히 이날 행사는 진도 '남도들 노래'(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1호) 예능보유자를 초청, 참가자들과 함께 '모 찌는 소리'와 '모심는 소리' 등을 부르면서 모내기 체험의 흥을 돋운다.

농업박물관은 모내기가 끝난 뒤 참가자 전원에게 못밥(설렁탕)과 막걸리 등을 제공, 옛 농부들이 협동노동 후 들녘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나눠먹던 먹거리 체험을 하도록 한다. 또 농가월령에 맞춰 6~9월 김매기와 벼베기·탈곡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석오 관장은 "잊혀져가는 전통 모내기를 직접 체험하며 옛 농경문화를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의 (061-462-2796)

【장필수기자 bungy@】

월출산 사자저수지서 풍년기원 '통수식'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하상수)는 최근 월출산 사자저수지에서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농업인과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통수식을 가졌다.

사자저수지는 영암군과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산수유지컬 '영암 아리랑' 공연장 예정지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수질개선 원년의 해'를 맞아 차질없는 청정 농업용수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상수 영암지사장은 "산수유지컬 '영암 아리랑'은 월출산과 사자저수지의 환상적인 컨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지사는 ▲저수지 139개소 ▲양수장 64개소 ▲배수장 8개소 등 총 263개소의 수리 시설물과 함께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수해면적(1만3581ha)을 관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강진 도서관 독서왕 선발대회

내달 10일까지 접수

강진군 도서관(관장 최홍열)은 군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까지 '제18회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독서왕 선발대회 응모부문은 초저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등 5개 부문으로 강진군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상소서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정하고, 원고분량은 초등부(저·고)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중·고등부 12매 내외, 일반부 15매 내외로 작성해야 한다. 원고접수는 초·중·고 학생부는 학교별 자체심사 후 도서관으로 학교별 접수, 일반부는 강진군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에서 참가신청서를 수령,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도서관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독서왕 5명을 비롯한 최우수상 10명, 우수·장려상 29명 등 모두 46명을 선발, 총 520만원 상당의 독서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h@】

전남 농기원, 귀농·귀촌인 대상 영농기술교육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귀농·귀촌인 및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채소반(5월 11~13일) ▲과수반(5월 18~20일) ▲도시민반(5월 28~29일·10월 8~9일) ▲농기특재·약용반(6월 15~17일) ▲농기계반(7월 5~7일) ▲한우반(9월 28~

30일) 등 6과정(210명)을 대상으로 농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교육과 우수농장 현장학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용교육으로 추진된다. 교육신청은 전남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에 과정보로 교육개시 30일전 또는 거주지 사군 농업기술센터에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송기용기자 song@】

장성 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 '탈바꿈'

편백나무 숲·계절꽃 군락지·식물터널 등 조성

협오시설로 여겨지던 장성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 개선공사와 계절꽃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친화시설로 탈바꿈되고 있다.

장성군 환경사업소는 사업비 131억원을 투입,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위해 적조와 녹조의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회전원판 접촉법(RBC)

으로는 영양염류(질소·인)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은 이달 중에 사업을 시작해 스크린·생물반응조·탈수기 등 시설을 개량하고, 인 처리를 위한 자동약품(PAC) 투입시설과 대장균 살균소독을 위한 자외선 소독시설을 신설하는 등 오는 2013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친화를 위한 사계절

꽃피는 하수처리장 조성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식목행사를 시작으로 편백나무 200주를 식재했고, 4월에는 편지·비올라·페튜니아 등 6종 1만1000본의 계절꽃 군락지를 조성했다. 또 식물터널을 설치해 통과, 관찰을 호박, 단호박 등 다양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외선 소독시설을 신설하는 등 오는 2013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전 북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도, 투자 유치 전략 마련

전북도는 익산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안)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은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장기 정책 추진방향과 민간부문의 투자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도는 우선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서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개발 콘셉트와 중장기 발전방향, 정주 여건 조성 방향은 물론 ▲투자와 재원조달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촉진 ▲민

간투자 유치전략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내외 식품산업과 연계 발전, 국내 농업 견인 방안 등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도는 그동안 실시한 각종 용역자료를 검토하고 유사사례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안)이 올해 8월 확정되는 한국도지주력공사(LH)의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장수서 내일부터 전국 승마대회

'제23회 춘계 전국승마대회'가 12일부터 15일까지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장수승마장에서 열린다.

대한승마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엔 전국에서 선수 200여 명과 250마리의 말이 참가해 장애물과 마장마술경기에서 실력을 겨룬다.

지난 2008년 개장한 장수승마장은 전국 최대 규모로 그동안 국제대회와

각종 전국승마대회, 한·일 승마대회 등을 성공리에 치러 국제 승마장으로 시설 검증받은 바 있다.

장수군은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한국 마사고 유치, 경주마 육성 목적, 장수승마장을 개장한데 이어 9.5km의 말 크로스컨트리를 조성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지리산 웰빙 고사리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주민들이 수확한 고사리를 포장하고 있다. 남원시 운봉, 인월, 신내면 350농가들은 해발 300~700m에 위치한 지리산 고령지 150ha에서 연간 고사리 65t을 생산, 60여억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신경전 벌이는 새만금 관할

행정구역 경계선 어떻게 정할까

내일 부안서 토론회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지구(4만 100ha)의 행정구역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새만금 방조제 준공으로 내부 개발이 본격화했으나 새로 생긴 매립지(간척지) 관할 구역을 놓고 새만금 주변의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합리적인 행정구역 체계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전북도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12일 부안군청에서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행안부는 세계 최장의 방조

제(33km) 중 일부(14km)와 다기능 부지(195ha)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 고사했으나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김안제 명예교수의 사회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간척지) 관할 구역을 놓고 새만금 주변의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 최혜택 교수, 안양대 계기식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에서는 ▲3개 시·군이 새만금지구를 분할해 관리하는 방안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새만금지구를 관리하는 방안 ▲3개 시군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 통합 관리하는 방식 등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만금 간척지는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 지도를 기준으로 해 '바다 경계'를 '육지 경계'로 바꾸면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에 각각 속하게 된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매립으로 새만금지구의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고 방조제 33km도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가 각각 11km씩 똑같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3개 시·군이 '새만금 땅'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가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필뉴스】

뉴스 브리핑

전북도, 장애인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전북도는 장애인들에게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두 62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한다. 이번 보급되는 장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등 31종과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 키보드, 마우스, 터치 모니터 등 14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17종이다. 지급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 활용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를 6월 13일까지 도청 행정지원관실에 내면 된다. 문의(063-280-3021)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스마트 인프라 구축 페이스북 서비스

정읍시가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page) 계정 전환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스마트(SMART) 시정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계정의 정읍시 공식 페이스북이 페이지(page)계정으로 전환

됨에 따라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에게도 정읍시 페이스북이 공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구축돼 있던 블로그, 트위터에 이어 페이스북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 정보화 마을 농특산물 홍보 성과

김제시는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3~4월 두달간 김제시 각면민의 날과 보리문화축제와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결과 24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에는 ▲백산면 수목골 ▲용지면 향토 등 4개 정보화마을

이 참가해 쌀, 참보리, 감자, 버섯, 누룽지 등 농특산물을 판매했다. 백산면 수목골 정보화마을 임경진 위원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사는 향우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끼고, 고향의 맛을 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전주 초등학교 주변에 말하는 CCTV 설치

전주시는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올해 10여억원을 들여 시내 14개 초등학교 주변에 '말하는 CCTV'를 설치한다.

CCTV가 설치될 학교는 중산, 평화, 완산 초등학교 등이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설치작업에 들어

가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 CCTV는 모니터 요원이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다가 무단 횡단을 하는 어린이나 어린이를 유괴 또는 납치하려는 범죄자가 있으면 스피커를 통해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돌봐 드립니다

전주 정신보건센터 순회상담

전주시 정신보건센터는 개소 11주년을 맞아 11일 한옥마을에서 순회 정신건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날 센터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검사와 스트레스 원인 탐색, 정신건강 정보제공, 상담연계 등 정신질환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지난 2000년 5월 문을 연 센터는 전주시보건소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2009년 1월부터 전북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전북 최초로 자살예방팀(I LOVE ME)을 운영해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 긴급의료비 지원, 자살위기·고위험 상황시 응급출동, 자살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